

예쓰(也斯) 소설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後殖民食物與愛情)》의 홍콩 상상과 방식*

金惠俊**

<목 차>

1. 중첩적인 등장, 불안정한 인물
2. 개인의 기억, 집단의 역사
3. 무소부재의 작가, 무소부재의 홍콩
4. 혼종적인 음식, 혼종적인 정체성
5. 총합적인 홍콩, 총합적인 홍콩인

홍콩작가 예쓰(也斯, 1949-2013)는 비교문학을 연구 강의하던 학자이자 많은 작품과 큰 성취를 남긴 시인, 수필가, 평론가, 소설가였다. 그의 창작과 저역은 70권이 넘는데 대표 소설로는 《용 키우는 사람 씨문(養龍人師門)》(1979), 《종이 공예(剪紙)》(1982), 《섬과 대륙(島和大陸)》(1987), 《프라하의 그림엽서(布拉格的明信片)》(1990), 《기억의 도시·허구의 도시(記憶的城市·虛構的城市)》(1993),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後殖民食物與愛情)》(2009) 등이 있다. 이 중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은 2011년 홍콩中文文學雙年獎을 수상했으며, 홍콩 반환 이래 홍콩문학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이 작품집에는 거의 평생에 걸쳐 그가 지속적으로 탐구, 재현하고자 한 홍콩의 진정한 모습과 홍콩인의 정체성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문학적 방법이 집약적이고 성공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 釜山大 中文科 教授.

는 바로 이런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며, 앞으로 나올 더욱 훌륭한 연구들의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중첩적인 등장, 불안정한 인물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의 초판(2009)에는 12편의 단편소설과 그 외 작가의 <後記>, <감사의 글(鳴謝)> 등이 실려 있다. 수정판(2012)에는 이 중 단편소설 1편이 빠지고 새로 2편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초판과 수정판을 합치면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의 작품 수는 총 14편이 되는 셈이다.¹⁾

각각의 단편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각각의 작품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물들이 중첩적으로 등장하고, 연속되거나 관련 있는 사건들이 다수 전개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첫 작품인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의 주인공은 史提芬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홍콩 출신으로 영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돌아온 후 낮에는 헤어숍이었다가 주말 밤에는 술집으로 변신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칼럼산문가로 활동하기도 한다.²⁾ 그런데 그는 나중에 <포스트식민 식신의 사랑 이야기(後殖民食神的愛情故事)>, <메콩강 따라 뒤라스를 찾아서(沿湄公河尋找杜哈絲)>, <딤섬 일주(點心迴環轉)>, <에필로그(尾聲)> 등에서 텔레비전의 자료조사자로 전업하여 주요 인물 또는 보조 인물로 다시 등장한다. 또 그 밖의 작품에서도 그의 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산발적으로 거론된다.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홍

-
- 1) 이 논문에서는 초판(2009)을 주요 텍스트로 삼고 수정판(2012)을 참고로 활용하였다. 작품 인용문의 쪽수는 초판(2009)을 따랐으며, 쪽수 표기는 편의상 해당 부분의 말미에 괄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부기하였다. 한편 일부 인용문의 한글 번역은 예스 지음, 김혜준·송주란 옮김,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을 활용했다.
 - 2) 칼럼산문가란 신문 문예면의 고정란에 정기적으로 수백 자에서 천 수백 자 분량의 산문을 기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홍콩의 칼럼산문에 관해서는 줄고, <홍콩 칼럼산문의 현황과 미래>, 《중국어논문총》 제33집(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07.6), 407-42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콩인 교수 何方(老何), 미국인 교수 羅傑, 음식평론가 薛大貴(老薛), 직장 여성 阿素를 비롯해서 많은 인물들이 각기 다른 작품에서 주요 인물 또는 보조 인물로 등장하면서 종종 기존의 인적 관계 속에서 연속성 있는 행동들을 보여준다. 이처럼 서로 얽혀 있는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여러 작품에 중첩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들을 포함해서 貴婦, 國強, 國雄, 阿李, 美子, 伊莎貝, 阿麗絲, 鴻榮, 寶釧, 小雪, 蕙, 阮, 洪嬌, 公主, 蓮黛 등 20명이 넘는다. 물론 전체 등장 인물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특정 작가의 서로 다른 작품에서 인물과 사건이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끔 볼 수 있는 일이다. 홍콩소설가 黃碧雲의 작품들에는 葉細細, 陳玉, 趙眉, 許之行, 陳路遠, 遊憂 등의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다른 장면에서 다른 신분으로 등장한다. 심지어 <두 도시의 달(雙城月)>의 여주인공인 七巧는 張愛玲의 <황금 족쇄(金鎖記)>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런 黃碧雲의 여성 인물들은 흡사 세포가 분열하며 증식하듯이 그녀의 세계를 채워나간다. 그러면서 이전에 만난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인 듯한 일종의 환영적인 효과를 부여한다. 즉 작품 안팎으로 풍부한 지시성을 창조함으로써 각각의 텍스트들을 비약적으로 풍부하게끔 만드는 것이다.³⁾

예쓰의 인물들과 사건들 역시 이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중첩적으로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각각의 텍스트를 상호 연관시키면서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예쓰의 인물들은 黃碧雲의 인물들과는 달리 일정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신분, 성격, 행동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장편소설 속의 인물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다른 아닌 작가의 의도 내지 사정과 관계있다. 작가 예쓰가 <감사의 글>에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그는 원래 장편소설을 구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1998년에서 2008년까지 약 11년에 걸쳐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관된 일련의 단편소설들을 창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3) 黃碧雲 작품의 인물과 사건 중첩에 관해서는 왕더웨이 지음, 김혜준 옮김, 《현대 중문소설 작가 22인》(서울: 학고방, 2014), 469-477쪽 참고. 타이완 소설가 蘇偉貞의 《침묵의 섬(沉默之島)》에는 霍晨勉이라는 동명이인인 두 여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쓰의 인물들은 또 장편소설 속의 인물이나 사건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다수 작품에서 羅傑의 홍콩인 여자 친구로 나오는 阿素(Suzie, 蘇絲)와 愛美麗는 이름만 다를 뿐 그 묘사된 신분, 인적 관계 및 역할로 볼 때 동일 인물이다. 그러나 각 단편에서의 성격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교토에서 길 찾기(尋路在京都)>, <행복의 메밀국수(幸福的蕎麥麵)>에서는 비교적 의존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묘사되고, <툰문의 에밀리(愛美麗在屯門)>, <덤섬 일주>에서는 대단히 독립적인 심지어 영악하기까지 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더구나 그녀와 羅傑가 처음 만난 것은,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에서는 瑪利安을 따라 史提芬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툰문의 에밀리>에서는 친구 愛時髦와 그녀의 영국 애인 約翰이 소개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예쓰의 인물과 사건이 상당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어느 정도 균열과 틈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각 단편들 사이의 연관성이 서로간의 지시성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각 단편들 사이의 어긋남이 일종의 상상의 여백을 만들어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공동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광범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대체로 장편으로 구상했던 소설을 단편소설 모음으로 바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며, 심지어 그 중 일부는 단순히 작가의 부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 그렇지만 최소한 작가가 장기간에 걸친 집필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가져오는 효과를 차츰 의식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선 작가가 인물의 일관성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성 내지는 불일치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그 모든 것이 부주의나 실수라고 보기에는 전체

4) 호주 출신 방문학자인 彼德/彼特, 유럽 출신 여교수인 多樂維夫人/多路威夫人的 경우처럼 단순히 표기만 다른 경우도 있다.

적으로 작가가 인물들에 대해 상당히 치밀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각 단편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출현하면서도 명백하게 또는 암암리에 서로 연계되는 있으며, 이것이 마치 서로 무관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홍콩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계속해서 등장인물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의 등장인물은 대단히 많고 다양하다. 예쓰는 화자의 서술을 통해 이런 등장인물의 이름·내력·경력·직업·용모·차림새·성격·행동 등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경우가 잦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

阮은 간호사로 몇 년 근무하다가 다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했다. 그녀는 원래 베트남 사람으로 어릴 적에 홍콩에 왔고, 홍콩에서 공부를 마친 뒤에는 미국인 의사와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었다. 일을 해 본 경험과 환경 때문에 동료 학생들보다 다소 성숙했고, 광둥말과 영어도 모두 훌륭한데다가 (70쪽)

이는 아마도 짧은 단편 속에서 다양각색의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작품집 전체에서 중첩적으로 등장하는 다수 인물들에게 어느 정도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등장인물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인물들에서 특이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유학·직업·이민 등의 이유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는 유동적인 인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의 阮도 그러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 홍콩 출신 史提芬·瑪利安·伊莎貝·藍玫瑰 등은 유럽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역시 홍콩 출신인 阿麗絲는 일찍이 유럽에 경도되었다가 다시 일본으로 기울어져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본인 美子は 홍콩이 좋아서 홍콩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이전함에 따라 싱가포르로 갔다가 결국 일본으로 돌아간다. 한국인 公主는 서울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유학한 다음 홍콩의 발레단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다. 미국인 羅傑는 한때 히피족 흥내를 내기도 했지만 영문학을 전공한 후 희망하던 일본 대신 홍콩에 와서 영문학보다는 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반면에 홍콩인 교수 何方은 종종 방문학자 신분으로 일본과 유럽에서 장기 체류한다. 홍콩 기자인 小雪는 타이완 특파원으로 가 있고, 타이완 출신 蕙는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하이 출신 소설가인 向東은 새로 홍콩으로 이주해온다. 蓮黛는 베트남에서 출생한 화인으로 타이완에서 성장했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다시 베트남에서 일시 체류하고 있다.

둘째, 그들의 경력과 직업에 변화가 많아서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老薛은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고 정치 단체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데, 처음에는 경마 평론을 하다가 나중에 음식 평론으로 전환하여 편집장까지 역임한다. 그 후 타의에 의해 그 직을 물러나게 되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혼자 이민을 취소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 여행사 공동 대표 겸 가이드를 하면서 홍콩·밴쿠버·중국 대륙 등지를 떠돌아다닌다. 물론 老薛 외에도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서 일본 회사 출신으로 음식점 개업을 구상하다가 결국 캐나다로 이민 간 阿李, 술집·일본 음식점·여행사 운영 등 수시로 전업을 하는 鴻燊 등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다.

예쓰의 인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 걸까? 우선 단순하게 보자면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겨난 전지구화 시대의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중국 대륙의 사회적 격변이나 기타 원인에 의해 종래로 홍콩 사람들의 거주 이동이 많은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설정의 밑바탕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작가 예쓰의 특정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집의 제목에 '포스트식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즉 작가는 포스트식민 시대의 각종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유동성과 가변성을 홍콩인의 애매 모호한 처지 내지 신분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잠시 거론한 史提芬의 신분과 언행이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왕년에 부모님이 홍콩으로 몰래 넘어 온 데다가 공식 출생증명서도 없고 생일도 불분명하다. 신분증 상에는 신고 당일의 날짜를 생일로 적어 넣었고, 집에서는 음력 생일 날짜를 사용하며, 양력 생일은 그의 이모가 대신 계산해본 적은 있지만 그 정확성이 의심스럽다. 이리하여 상황에 따라 생일 세 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적당히 대처해 왔는데, 그의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에 오히려 잘 어울린다. 친구들이 해준 첫 번째 생일 파티 때는 홍콩 반환 무렵이어서 텔레비전에서는 애국가요 공연이 이어지고 있고, 남들은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를 중시하지만, 자신은 그 어떤 대단한 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史提芬의 경우에서 보듯이 많은 작중 인물들이 출신지와 거주지, 직업과 경력, 심지어 신분에도 이르기까지 계속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불안정한 것은 단순히 전지구화 시대의 홍콩과 홍콩인이라는 상황을 반영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1997년 홍콩반환 이후를 의미하는 포스트식민 시대의 홍콩과 홍콩인의 애매모호한 상황과 관련하여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설정한 것이다.⁵⁾ 단적인 예로 老薛이 밴쿠버 공항의 입국심사대 앞에서 심란해하는 것을 두고 화자가 “어디가 고향이고 어디가 이국인지 알 수 없었다.”(132쪽)라고 묘사한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애매한 상황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쓰의 등장인물 중에 사회적으로 현저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는 드라마틱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직장인·점원·소상공인·하층노동자·주부·학생에서부터 교수·기자·평론가·예술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일반적인 시민에 속한다.⁶⁾ 물론 어떤 작가의 작품들에서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평범한 소시민이라는 점 그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예쓰의 작품에는 이 점과

5) 같은 이유로 해서 그의 작품에는 1997년 홍콩반환과 관련된 언급이 대단히 자주 출현한다. 그리고 이런 의도는 다른 많은 방면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6) 조폭 조직의 보스나 킬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소인물에 불과하다.

더불어서 그들이 작중에서 경험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바로 그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지만 각자 자신 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모든 면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예를 들면, <행복의 메밀국수>에서 화자인 何方은 鴻燊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鴻燊은 나의 옛날 친구인데 점점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 나는 우리가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98년 봄 인연이 닿다보니 몇 갈래 사람들이 東京에서 조우하게 되었다. 그때 아주 신나게 즐겼는데 우리가 크게 다툰 때이기도 하다. 그 후론 만나지 않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도처에 나를 나쁘게 말하고 다녔다. …… 그런데 어쩌다보니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되었다. … 나는 결국 그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59쪽) 화자는 여기서 그야말로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사소한 일상생활 내지 소소한 인간 관계를 주절대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집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무시로, 무수하게 출현한다. 더구나 이런 특징은 주요 인물이나 보조 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과성으로 등장하는 배경 인물에조차 그대로 적용된다. <툰문의 에밀리>에서 온갖 메뉴가 다 있는 서민 음식점인 ‘차찬팅(茶餐廳)’의 사람들을 묘사한 다음과 같은 곳이 그렇다.

줄고 있던 사장은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채였다. …… 포장판매용 도시락을 사러 들어온 이는 과일 가게 점원 녀석인 阿橙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감때사나운 주인에게 이리저리 불려 다니고 지청구나 먹고 있다. …… 은퇴한 鄭老伯, 늘 신문이나 들여다보며 시사를 논하고는 한다. 구석 자리에는 실업자 신세의 粵曲 예술가인데, 소문으로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날마다 종이 한 뭉치를 들고 와서 곡본을 쓰지만 여태껏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진짜 이상적인 여주인공의 모습은 써내지 못하고 있다. 좀 전에 접시와 그릇을 한 대야 가득 담아 지나간 이는 설거지 담당 阿淨으로, 쟁그랑 쟁쟁 매일 유리잔을 2, 30개씩 캐트리고는 해서 사장이 노발대발하도록 만든다. 맨 앞쪽에 앉아서, 카운터에서 돈을 받고 있는 阿娥를 마주 보고 있는 저 삐쩍 마른 남자는 阿娥의 지난번 남자 친구다. 이미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

는 매일 멍하니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102쪽)

홍콩작가 陳冠中은 <감또우 차찬팅(金都茶餐廳)> (2003)에서 홍콩의 다양하고 혼종적인 음식과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차찬팅'이라는 대중음식점 및 내력이 복잡하거나 불분명한 홍콩의 보통 인물들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예쓰의 위 인용문 부분은 마치 陳冠中 작품의 축약판 같은 느낌을 주는데, 특히 소시민들의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각자의 이야기가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다.⁷⁾ 예쓰가 이처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불안정한 홍콩의 수많은 소시민들의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각자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주절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해보자.

2. 개인의 기억, 집단의 역사

예쓰는 평범한 소인물들의 사소한 일상생활과 소소한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늘어놓는다. 비록 소설 속이지만 이런 것들은 언어로 기록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억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개개인의 이야기는 개개인의 기억이 되는 것이다. 예쓰가 작품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사소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기까지 한 그리고 때로는 망각되어 미처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개개인의 이야기들 — 개개인의 기억들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다.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에서 史提芬은 여자 친구 瑪利安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世伯, 老伯)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이 과거에 접했던 음식, 식사 장소 및 그와 관련된 일화를 말하거나 회상한다. 여기서 등

7) 줄고, <나의 도시>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 홍콩문학 속의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 '페이옹'(菲傭)>, 《코기토》 제69호(부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2), 117-147쪽 참고.

장인물들의 이와 같은 행위 자체도 그러하거나 그것을 전달하는 화자 史提芬의 서술이 예사롭지 않다. 그는 식사 장소에 대해 “이곳의 과거 역사를 좀 더 알고 싶었다.”(8쪽)라고도 하고,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나와 관련된 그런 역사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쉽사리 일체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공식이란 없는 것이다”(8쪽)라고도 한다. 이런 예는 상당히 많다. 특히 초판본의 마지막 작품인 <딤섬 일주>에서 화자인 何方은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 모두 쓰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 누구 대신 써주기란 어려운 일이다.”(243쪽)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예쓰가 보기에 홍콩 사람들 개개인의 수많은 기억 그것은 단순히 하찮은 사람들의 보잘 것 없는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인이라는 집단의 기억이고, 그것은 곧 홍콩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다.⁸⁾ 이 때문에 예쓰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이고, 작중의 인물들은 그리 대단치도 않은 자신들의 과거지사를 끊임없이 말하거나 회상하는 것이다. 즉 예쓰는 홍콩 사람들 개개인의 기억을 통해서 홍콩인이라는 집단의 역사를 말하려는 것이다. 그의 작품집에서 기억(記得, 記起, 記憶, 回憶 등)과 歷史라는 말이 각각 약 70회를 상회할 만큼 유난히 자주 등장하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심인물 중 하나인 何方이 ‘역사를 가르치는’(3쪽)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런 개인의 기억들은 정확할 수도 있지만 부정확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끼리 서로 어긋나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부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기억조차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溫哥

8) 예쓰는 일찍이 소설 《記憶的城市·虛構的城市》(香港: 牛津出版社, 1993)에서도 “우리 이 시대 …… 기억이 억압되고 왜곡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으며 진상을 찾고자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 인간은 자신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자체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더욱 성숙하고 개방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84쪽)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예쓰는 의식적으로 기억 — 역사를 찾아내고, 보존하고,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의 일환이 바로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華的私房菜》에서 老薛과 寶釧은 밴쿠버에서 살 집을 구한 것이 각자 자신이었다고 주장한다. <툰문의 에밀리>에서 羅傑은 愛美麗 아버지의 폐암 구완 때 자기도 애쓴 바가 있다고 하지만 愛美麗는 고개를 내저으며 탄청을 피운다. <엘블리의 만찬(艾布爾的夜宴)>에서 何方(我)은 분자요리로 유명한 엘블리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과음 탓인지 史와 覓 부부도 동석했다고 여기지만 이튿날 뉴스를 보고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엘블리로 오던 도중에 이미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것은 현실 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다르거나 혼란스럽기까지 한 개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해서 집단의 역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의 화자(실은 작가) 또한 다음과 같이 익살을 섞어 말한다.

寶釧은 마치 무슨 민족주의자가 포스트식민 역사를 다시 쓰듯이 단호하게 한마디로 목살해 버렸다. “그런 일 없었어요!” 역사의 한 자락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 (134쪽)

바로 그렇다. 역사와 기억, 역사와 망각, 역사와 상상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다.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에서 화자는 “과연 승리자가 역사를 쓰는 것”(148쪽)이라고 말한다. 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통속적인 표현이다. 알다시피 이 말은 역사 서술에서 있었던 일을 외면한다거나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다가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많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역사 서술에는 기억보다 망각이 더 많다거나, 역사란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진실한 또는 객관적인 역사 내지 역사 서술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란 사실은 상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예쓰의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의 복잡한 기억과 역사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예쓰가 생각하는 홍콩인의 집단 기억, 홍콩의 역사가 관방에서 강조하는 기억이나 역사책에서 말하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 작품집을 통해서 볼 때 예쓰는 특정 관점이나 이론에 의해서 단순화된 역사 서술, 일종의 선형적인 거대 서사에 대해 시종일관 회의적이다. 그에게 있어서 홍콩의 역사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면서 선택적으로 기억과 망각을 통해 재구성된 어떤 총체가 아니다. 서로 일치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며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한 개개인의 기억들의 총합인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 즉 개인의 기억과 그것의 총합으로서 집단의 역사와 관련된 서술이 그렇게도 자주 출현했던 것이다.

예쓰는 바로 이런 관점과 의도에서 주로 홍콩인인 등장인물들의 사소한 일상사는 물론이고 홍콩의 도시 풍경, 사회 사안, 그리고 심지어 음식에 대해서 까지 세세하게 묘사한다.⁹⁾ 예를 들면, <툰문의 에밀리>에서 주인공 愛美麗는 아버지의 식욕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툰문 지역의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때 화자는 거리 모습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든가 음식과 그것을 파는 식당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종종 홍콩의 각종 사회 사안과 연결시켜서 서술한다. <딤섬 일주>에서 何方은 向東의 길안내를 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오래된 점포의 변천을 일일이 소개해주는 한편 재개발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원래 형성되어 있던 공동체적 관계와 갖가지 누적된 생활의 경험들 또한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246쪽)이라며 공동체의 파괴와 역사성의 소멸을 생각한다. 그 외에도 이런 예는 대단히 많다.¹⁰⁾

사실 홍콩문학에서 홍콩의 도시 풍경과 생활 모습에서부터 사회 현상이나

-
- 9) 예쓰는 소설뿐만 아니라 시, 산문 등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한 한글 문헌으로는 다음 것들을 참고할 만하다. 박남용, <홍콩의 梁秉鈞 시에 나타난 도시문화와 홍콩의식>, 《외국문학연구》 제34집(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5), 121-143쪽; 송주란, 《也斯 산문의 홍콩성 연구: 1970,80년대를 중심으로》, 부산대석사논문, 2010.2.
- 10) 장소의 상실, 개인의 기억, 홍콩의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송주란, <예쓰(也斯) 작품에 나타난 홍콩 도시화에 대한 기억과 흔적 — 소설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54집(부산: 대한중국학회, 2016.3), 241-256쪽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문화 상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표현한 것은 예쓰의 작품이 처음은 아니다. 劉以鬯이 《술꾼(酒徒)》(1963)에서 이미 그 선례를 보여준 적이 있다.¹¹⁾ 또 西西는 일찍이 《나의 도시(我城)》(1979)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소재로 하면서 공간의 장소화, 공간의 유사 장소화, 삶의 기표화 등의 방식을 통해 홍콩이라는 도시의 공간과 사회 및 사람들의 삶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¹²⁾ 예쓰는 그런데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상세하고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역사화하면서 이를 통해 은연중에 이 도시 사람들의 곤혹스러운 상황과 그것에 대한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원과 맞은편의 빌딩이 연결된 육교로 걸어갔다. 사방은 높이 솟은 은행 빌딩들의 절벽이었고, 이곳은 깊은 골짜기에 걸쳐진 외나무다리 같았다. …… 차이나 뱅크 빌딩 뒤 쪽 …… 화원 안에는 貝聿銘가 끝까지 고집한 타이완 예술가 朱銘의 태국인 형상이 있었다. 육교는 창장 빌딩(長江大廈)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왕년에 이곳은 힐튼 호텔이었다. 창장은 向東에게는 조국의 강이지만, 우리로 보자면 부동산 회사일 뿐이었다. (235쪽)

1997년 홍콩 반환을 전후하여 홍콩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홍콩인에게 익숙하던 각종 공간들이 경제적 효과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상징물들이 들어선 셈이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은행 홍콩지점 건물인데, 식민시대 홍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HSBC보다 더 높게 건축되어 당시 홍콩의 최고층 건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주인은 다름 아닌 중국 대륙이다. 반면에 설계자는 재미 화인이고 기념 조형물의 조각가는 타이완 사

11) 줄고, <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 《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 — 홍콩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72집(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5.12), 297-320쪽 참고.

12) 줄고, <《我城》(西西)의 공간 중심적 홍콩 상상과 방식>, 《중국현대문학》 제65집(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3.6), 59-92쪽 참고. 여기서 공간의 장소화란 어떤 특정한 고정된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함으로써 무의미한 공간을 유의미한 장소로 만드는 것, 공간의 유사 장소화란 홍콩 특유의 공간 상황을 마치 장소처럼 각인시키는 것, 삶의 기표화란 홍콩 특유의 사물들이나 생활상의 세절들을 통해 홍콩을 이미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람이다. 창장 빌딩 자리의 힐튼 호텔은 사실은 애초부터 홍콩 최대 재벌인李嘉誠의 부동산 회사인 長江實業地產有限公司 소유였다. 다만 힐튼 호텔 쪽에 위탁 관리를 시켰던 것을 홍콩 반환 즈음에 다시 회수하여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창장 빌딩이라는 이름을 도로 붙였을 뿐이다. 그런데 ‘창장(長江)’이라는 같은 단어를 두고 대륙 사람과 홍콩 사람이 각기 서로 다른 상상을 하고 있다.

예쓰가 이런 점들을 특별히 거론한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작중의 홍콩인 화자 何方은 상하이에서 온 向東의 길안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기 ‘(홍콩은) 어디로?’라는 뜻과 ‘(창장처럼) 동쪽으로’라는 뜻을 가진 이 두 인물의 이름 역시 자못 의미심장하다. 이는 바로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이라는 역사적 변화와 그것에 대한 양 지역 사람들의 의미 부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이는 영국의 식민시대가 끝난 포스트식민 시대에 중국 대륙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홍콩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자칫 새로운 식민자의 행위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 인용문 바로 다음 부분에 과거 영국의 자본과 권위를 상징하던 HSBC은행 1층 공간을 휴일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菲傭)이 점령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슬쩍 집어넣은 것 역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¹³⁾ 다시 말해서 포스트식민 시대에 들어서서 중국 대륙이 홍콩에 대해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지구화시대인 오늘날에 민족주의적 관념만으로는 홍콩의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과 역사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¹⁴⁾

13) 식민시대를 상징하던 HSBC은행은 포스트모던하게 신축되었는데 1층은 특 트여있어서 마치 천장이 있는 광장처럼 되어 있으며, 포스트식민시대가 되자 휴일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현재는 필리핀 출신보다 인도네시아 출신이 더 많다)이 이곳을 점령해버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정은 줄고, <‘나의 도시’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 홍콩문학 속의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 ‘페이용’(菲傭)>, 《코기토》 제69호(부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2), 117-14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만일 이 정도의 설명으로 미진하다면 그 앞에서 거론했던바 원주민을 추방하는 재개발에 관한 화자(사실상 작가)의 반응을 참고해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3. 무소부재의 작가, 무소부재의 홍콩

예쓰는 상기한 것처럼 인물의 신분, 경력과 그들의 일상사에서부터 홍콩의 도시 풍경, 사회 사안, 음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소한 묘사를 통해서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역사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예쓰의 이러한 기억화, 장소화, 역사화는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이나 그들의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소설의 화자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작품의 인물이나 사건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 인물의 언행이라든가 스토리의 전개 또한 엄청나게 놀랍지는 않다. 반면에 이를 묘사하고 풀어어나가는 화자의 서술이 오히려 더욱 볼 만하다.

예쓰 작품의 화자는 1인칭 화자인 경우도 있고 3인칭 화자인 경우도 있으며, <딤섬 일주>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두 종류의 화자가 동시에 출현한다. 1인칭 화자는 史提芬, 何方, 小雪 등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며, 3인칭 화자는 전형적인 전지적 이야기꾼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이들 화자는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동안 수시로 인물들의 행위와 사고, 그들이 겪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 평가한다. 그런가하면 직접적이든 비유적이든 간에 홍콩인 또는 비 홍콩인이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거론하고, 홍콩과 관련된 갖가지 역사·정치·문화·경제적 사안들을 언급한다. 즉 예쓰 작품의 화자는 사건 진행만 충실하게 서술하는 '중립적 화자'가 아니다. 끊임없이 홍콩과 홍콩인에 대해 수다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논평적 화자'이다.¹⁵⁾ 좀 더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화자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설을 늘어놓는 것이다. 이런 화자의 성격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작중 화자의 이름과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마치 작가 자신의 현신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즉 소설을 읽어어나가는 동안 독자

15) '중립적 화자'와 '논평적 화자'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서울: 문학각지성사, 1990), 81-8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는 자연스럽게 화자와 작가를 동일시하게 되면서 마치 작가인 예쓰가 숨 없이 늘어놓는 잔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작품의 화자(또는 작가 예쓰)는 작중 인물의 언행에서부터 홍콩의 사안들까지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해 모두 언급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에서부터 문학 작품·영화 드라마·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수많은 인물·사건·문구 등을 인용하거나 패러디하고, 일상어나 유행어 외에도 학술 용어나 고문까지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종종 새로운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¹⁶⁾ 화자의 표현은 때로는 익살스러운 이죽거림이었다가 때로는 씩씩한 푸념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리한 관찰이었다가 때로는 깊이 있는 평가이기도 하다. 한 사안에 대한 장광설은 거의 없지만 이것저것 많은 사안에 대한 짧은 언급들이 계속 쏟아진다. 또 어떤 곳에서는 콜라주나 몽타주의 방식을 써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전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행복의 메밀국수>에서 화자 何方이 일본인 小澤 교수와 1차, 2차, 3차 식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마시는 술도 많아지고, 또 그럴수록 두 사람의 행동과 대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서술에도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도약이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거의 문화대혁명 이래 중국의 역사 및 小澤 교수의 일생에 대한 요약이라고 해도 무방한 일련의 이미지의 연쇄로 바뀐다.

이처럼 예쓰의 소설은 인물의 언행과 사건 자체도 평범한 인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잡사와 그에 대한 반응이고, 스토리 전개도 비교적 간단하고 기복이 없는 편인 데다가, 이 모든 것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끊임없이 끼어들어 잡다한 사설을 늘어놓는다. 게다가 <교토에서 길 찾기>, <행복의 메밀국수>,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 <슬로베니아 이야기(斯洛

16)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작품에서 예쓰는 傳奇나 章回小說의 형식을 응용하면서, 주인공의 이름에서부터 소설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 《薛平貴》나 《王昭君》 등의 이야기를 인용·패러디할 뿐만 아니라, 문언문·광동말·표준 중국어를 혼용한 1940-1960년대 홍콩 특유의 째지디 문장(三及第文字)을 흉내 내기도 한다.

文尼亞故事) >, <엘블리의 만찬>, <메콩강 따라 뒤라스를 찾아서>, <딤섬 일주> 등 거의 절반에 이르는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홍콩이 아닌 세계 각지를 여행 또는 체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 관찰, 반응 등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예쓰의 소설은 마치 작가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느낀 바를 직접 들려주는 것 같으며, 특히 각지의 풍광과 풍습 외에도 다양한 출신지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와 행동에 관한 서술이 많기 때문에 흡사 신변수필이나 여행수필 같기도 하다. 또 이로 인해서 이 소설집의 후기인 <원툰민과 분자 요리(雲吞麵與分子美食)>는 그것이 작가의 후기인지 아니면 또 한 편의 소설 작품인지 거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예쓰 소설의 이런 특징은 그의 작품 속에서 화자 또는 더 나아가서 작가 예쓰 자신이 무소부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치 3인칭 화자도 작가 자신이고, 1인칭 화자로 등장하든 아니면 3인칭 화자에 의해 기술되든 간에 史提芬·老薛·何方·羅傑 등 주요 등장인물들 역시 모두 작가의 현신인 것 같다. 예를 들어보자. 羅傑는 비교문학을 전공한 미국인으로, 일본에 가려다가 홍콩에 정착하게 된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신분·나이·사고·연행 자체가 작품 속 다른 주요 인물들과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작중의 화자 역시 주로 그의 입장과 시각에서 그와 관련된 각종 사안들을 서술한다. 이에 따라 작중에서 화자와 羅傑는 흡사 동일인인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 史提芬·老薛·何方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는 예쓰 작품이 가진 수필적인 특징과 한데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주요 인물들과 화자가 모두 작가의 분신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만일 독자가 작품집의 말미에 부가되어 있는 작가의 <후기>와 <감사의 글>까지 모두 읽는다면, 그래서 작가에 관한 실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느낌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물론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작가 예쓰를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다.¹⁷⁾

17) 예쓰는 <후기>에서 주변에서 실제 인물을 모델로 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작품에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 녹아있을 뿐이며 풍자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혀놓았다(260쪽). 아마도 예쓰와 아는 사람들은 작중의 인물이나 에피소드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

이 작품집에서 무소부재하는 존재는 화자 내지 작가뿐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존재가 있다. 바로 홍콩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작품집의 공간적 배경은 홍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홍콩 외에 일본·캐나다·스페인·슬로베니아·베트남 등이 각기 주요 배경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국·포르투갈·중국 대륙·독일·미국 등도 등장한다. 그런데 예쓰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무슨 문제든 간에 수시로 모두 홍콩과 연결시킨다. 이 때문에 등장인물이 세계 어디를 가든 또는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홍콩이 출현하는 셈이 된다.

예를 들면 화자 何方이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시인대회에 참석한 것을 다룬 <슬로베니아 이야기>가 그렇다. 서두에서부터 何方은 입국 때 ‘홍콩특구’ 여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어서 독일 통일을 언급하면서 통일 당시 “낭만적인 카니발은 얼마 계속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다”(121쪽)라며 은근히 홍콩반환을 연상시킨다. 그러더니 그 뒤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다음 아년 “1997년 우리(홍콩)의 국제 시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루마니아 시인 拉札”(123쪽)라고 말한다. 이런 식의 서술은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키프로스 시인 史達爾分과 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키프로스는 홍콩과 유사하게 1970년대에 대규모 이민을 떠났는데, 우리는 혈육의 이산 및 정치가 만들어낸 인간적 괴리와 오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130쪽)

이런 방식으로 홍콩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상관없이 등장인물의 대화나 화자의 설명 속에서 무시로 출현한다. 그뿐만 아니다. 내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각기 ‘반환’ 또는 ‘통일’된 마카오와 베트남을 주요 무대로 하는 <마카오의 킬러와 새우 페이스트(濠江殺手鹹蝦醬)>와 <메콩강 따라 뒤라스를 찾아서> 등이 그러하듯이 홍콩의 특수성이 소설의 배경과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투영되기도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 史提芬이나 羅傑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홍콩인이든 아니든 간에 홍콩인의 특징이 등장인물의 행위와 사고에서 발휘되기도

한다. 요컨대 홍콩은 모든 작품에서 명실상부하게 무소부재하는 것이다.

홍콩이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물론 작가의 모든 관심이 홍콩에서 출발하여 홍콩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쓰 자신은 혹시 미처 의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는 홍콩이 세계의 일부이자 세계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그것에 대한 설명은 홍콩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홍콩은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적이고 독립적인 곳도 아니고, 단순히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곳 또는 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한 곳도 아니다. 사실상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세계의 축약판이자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인 것이다. 종래로 홍콩 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홍콩 사람들과 중국 대륙 사람들은 홍콩 문제를 홍콩과 중국 대륙의 관계에 한정시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예쓰는 사실상 홍콩이 홍콩과 중국 대륙이라는 한정된 범위내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 바로 이 때문에 이 작품집에는 세계 각지가 배경일 때도 무시로 홍콩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홍콩이 배경일 때도 무시로 세계 각지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집에서 무소부재하는 홍콩의 진정한 의의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점이다.

4. 혼종적인 음식, 혼종적인 정체성

예쓰는 무소부재하는 홍콩을 표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항들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장치와 방법을 사용했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자신의 홍콩 상상을 충분히 발휘해줄 수 있는 소재로 ‘음식’을 선택했다는 점일 것이다.

예쓰는 그의 <후기>에서 “음식은 많은 사람들의 정과 관계를 이어 주며, 우리의 기억과 상상에 연결된다.”(253쪽)라고 말한다. 그렇다. 예쓰가 자신의

홍콩 상상을 표현하는 주요 소재로 음식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밴쿠버의 한 문화제에서 있었던 홍콩 문화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딱딱한 학술 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그 무엇인가로 홍콩 문화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 음식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음식은 일상에서 늘 접하는 구체적인 것이자 맛과 빛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과 기억을 이어 주고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음식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홍콩과 홍콩인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후일 이 아이디어를 소설 등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그 결과는 이 소설집에서 보듯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¹⁸⁾

이 작품집에는 거의 모든 곳에 음식 및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며, 그 중 중요한 장면에서는 음식이 초점이 된다. 예를 들면,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에서 史提芬과 瑪利安은 음식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되고, 음식 때문에 헤어지며, 또 음식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다. 史提芬의 생일 파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화제이고 생일 그 자체는 오히려 뒷전이다. 이 파티의 참석자들의 언행에서 보듯이 이 작품집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음식에 관심이 있다. 그들 중 老薛·小雪·鴻燊 등 몇몇은 아예 음식 평론가나 음식 담당 기자 또는 음식점 주인이다.

예쓰는 인물들의 신분, 성격이라든가 그들의 일상생활 또는 도시 풍경이나 사회 사안을 홍콩인의 집단 기억과 연결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음식을 통해 기억을 불러오고, 만들어내고, 축적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史提芬과 瑪利安 및 그녀의 아버지인 世伯와의 만남과 헤어짐 자체도 그렇고, 그들 각자의 과거에 대한 기억도 그러하다. 이런 형태는 작품집 전체에 적용된다.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에서는 老薛이 밴쿠버에 이민 와 있는

18) 梁秉鈞, <嗜同嗜異 — 從食物看香港文化>, 《香港文學》總第231期, 2004年3月1日, 16-20頁. 본문 서술은 예쓰 지음, 김혜준·송주란 옮김, <해설>, 앞의 책, 277-291쪽을 참고했다.

지인들에게 음식과 관련된 중국 여행담을 늘어놓자 “모두들 마치 老薛을 따라서 떠나면 여행을 떠나 산 넘고 물 건너 그 아련하고 찾기 힘든 고향의 맛을 보는 듯했다.”(140쪽)고 묘사한다. 초판본 마지막 작품인 <딤섬 일주>에서는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何方이 向東에게 딤섬(點心)을 사준 것을 비롯해서 음식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이 수시로 출현한다. 심지어 何方은 向東을 안내하는 도중에도 연도의 음식점 및 그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설명해준다.

이런 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이른바 전지구화 시대에 들어선 이래 음식과 여행은 문화생활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방송에서는 소위 ‘먹방’과 ‘쿡방’이 성행하고, 음식과 여행을 위주로 하는 채널이 등장했으며, SNS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넘쳐난다.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본다. 심지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상기할 때 누구를 만났고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를 먼저 떠올린다. 또 여행의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풍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여로에서 경험했던 음식이다. 바로 이처럼 음식은 음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예쓰는 음식을 기억의 계기 또는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통해서 개인의 기억을 집단의 역사로 바꾸어놓는다. 즉 음식과 관련된 기억을 역사화하는 것이다.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에서 老薛의 모친은 부족한 재료와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온갖 풍상을 겪은 세대답게 순식간에 멋들어지게 음식을 차려낸다. 이 때 화자는 바로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녀가 겪은 역사적 사건들 및 시대적 풍모와 그녀의 음식 솜씨를 한데 엮어서 보여준다. 또 음식에는 그 자체의 역사성이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예쓰가 의도하는 집단의 역사와 연결되기도 한다. 예컨대, “면발이 적당하면서도 입에 개운한 윈툼민 국수의 이면에는 적잖은 손길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수많은 나이 많은 조리사들이 실천을 통해 깨친 것들을 손과 입으로 전해 준 결과”(256쪽)인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음식은 역사 해석이나 역사 서술의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첫

작품인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에서 등장인물들이 홍콩 반환 축하연의 음식을 보며 야유하는 것이 그렇다. '7월 1일에 다 같이 즐거워 웃네(七一同歡笑)' 등 민족적 색채와 상서로운 축원이 가득한 이름의 음식이 실은 친숙한 전통적인 일상의 음식에 찬양과 과장적인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3-14쪽) 이는 곧 관방의 일방적이면서 강압적인 역사 만들기를 은근히 꼬집고 있는 것이자 집단의 역사는 평범한 개개인의 기억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포스트식민 식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화자인 小雪와 老薛 두 사람이 거리 음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음식평론가인 老薛는 일반인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대중적인 음식을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과 결합된 특유의 면모를 발굴해낸다.

타이완 소설가인 朱天心은 <胸牙利之水>(1995)에서 냄새 → 기억 → 역사라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녀는 이 소설에서 “향수 냄새를 맡기만 하면…… 자신의 과거를 다 기억해낼 수 있을 테니까”¹⁹⁾라면서 냄새와 기억을 결부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은연중에 자신과 같은 타이완 외성인 출신의 역사를 강조하고 타이완에 대한 그들 몫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예쓰는 이 작품집에서 냄새 대신 음식을 활용하여 기억을 불러내고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언어를 통해 기억을 불러오고, 만들어내고, 축적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이제 새롭게 음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추가한 셈이다. 이와 같은 음식에 관한 예쓰의 구상은 아마도 작중인물인 老薛의 구상으로 간명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식민 식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老薛는 홍콩의 음식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쓰고자 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홍콩의 역사·정치·문화 등 홍콩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자 한다.(154쪽)

예쓰의 이런 음식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한 가지는 음식을 통해 그가 생각하는 홍콩 또는 홍콩인이 가진 어떤 특징 — 혼종성과 개방성을 부각한 것이다. 음식은 어떤 지역의 자연적 여건과 인문적 환경에 따라 독자적인 특성

19) 주텐신 지음, 전남운 옮김, 《고도》(서울: 지식음만드는지식, 2012), 158쪽.

을 가지게 된다. 만일 음식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게 되면(전파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며, 종종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환경과 결합한다. 그 결과 기존의 것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것이 되거나,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커서 변종이 되거나, 또는 아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예쓰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특성, 즉 음식과 결부된 기억과 역사뿐만 아니라 혼종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그가 상상하는 홍콩과 홍콩인을 표현한다. 이런 의도에 의해 이 작품집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식이 등장한다. 중국 각지나 세계 각지에서 들어와 아직까지 원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음식, 원래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홍콩화하기 시작한 음식, 이미 혼종되어 새롭게 생겨난 음식, 홍콩에서 중국 각지와 세계 각지로 진출한 음식, 그것들이 다시 현지화한 음식 등등.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음식들의 상황은 앞서 말한 등장인물들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불명료하고 불안정한 신분 및 처지와 한데 어우러져 홍콩인이 누구이며 홍콩이 어떤 곳인가라는 문제와 미묘한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작가는 화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정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에서 史提芬은 런던에서 유학할 때 먹어본 프랑스 요리와 태국 양념이 미묘한 결합된 것 같은 퓨전 음식의 맛을 잊지 못하면서 그것은 “동서양 문화가 한데 융합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내게 느끼게 해 주었다.”(8쪽)고 말한다. <딤섬 일주>에서 미국인 羅傑는 서울의 일본 식당 메뉴판에서 “마치 대해를 표류하다 부표를 만난 듯”, “Sashimi bibimbap”을 찾아내고는 “이야말로 그가 찾아낸 가장 마음에 드는 선택이었다.”(238-239쪽)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예들을 잘 살펴보면 작가가 말하는 혼종은 단순히 다원적인 요소들의 혼합, 혼종이 아니다.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주의자 사이의 흥내내기의 개념에 유사한 호미 바바 식 혼종이다. 예쓰는 어떤 특정 기준에 의해 강요된 정통성 내지 오리지널성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한 것들을 전복할 수 있는 흥내내기 형태의 혼종성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서 심지어 혼종성

자체가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더 확장해서 보자면 홍콩에 대해 식민주의 또는 민족주의에 근거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정통성의 주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홍콩의 혼종성 자체가 바로 홍콩의 정통, 홍콩의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혼종이 일어나기 전이나 일어나고 있는 도중 또는 이미 혼종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강요된 오리지널과 그것을 흉내 낸 변형된 복제품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한편으로 그는 다원적인 병존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의 혼종은 오리지널의 강요에 흉내내기로 대항하면서 이와 동시에 혼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오리지널에 의한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는 즉 모든 것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소위 용광로식 다문화주의는 아니다. 즉 그가 상상하는 혼종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또 단순하게 병존하는 것도 아닌, 서로 간섭함과 동시에 서로 공존하는 그런 혼종인 것이다.²⁰⁾

이런 면에서 보자면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에서 밴쿠버의 텔레비전에서 쉴 새 없이 방송되는 음식점 광고에 대한 화자/작가의 반응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예컨대 어떤 곳에서 화자는 “마치 과거에 홍콩에 있었던 것이라면 몽땅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았다. 이미 많은 요리사들이 이민을 온데다가 요리 재료는 더 신선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홍콩에는 없는 것도 있었다.”(137쪽)라고 서술한다. 이는 흡사 홍콩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이 모두 다 있으며, 그것들은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혼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밴쿠버 등 다른 지역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는 홍콩인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진취적임을 주장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태도

20) 예쓰는 <鴛鴦>(1997)이라는 시에서 다섯 가지 차이점으로 우려낸 홍콩식 밀크티(奶茶)를 커피(咖啡)에 혼합한 홍콩 특유의 鴛鴦이라는 차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그 진한 음료가 /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른 쪽을 말살해버릴까? / 아니면 그래도 또 다른 한 가지 맛을 남겨둘까 / 거리의 노상 음식점 / 일상의 화롯불에 의해 녹여낸 정리와 세상사 / 일상의 잡사들과 소식들, 부지런하면서 또 약간은 / 산만한 ……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맛을” 梁秉鈞, <嗜同嗜異 — 從食物看香港文化>, 《香港文學》總第231期, 2004年3月1日, 16-20쪽에서 재인용.

는 이 작품집에 등장하는 음식들 — 그것이 어느 지역 음식이든 간에 또는 고급 음식이든 대중 음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 에 대해 우열과 고하를 따지지 않고 각기 그것들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된다.

또한 이런 의도는 비단 음식을 통해서만 표출되고 있는 것만 아니다. 그 중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대체로 등장인물들의 생활과 지위가 유동적, 가변적이며 특히 그 중 다수의 인물은 출신이 불명료하거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도 그러하거나와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서도 이런 의도가 나타난다. 이 작품집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홍콩 출신이다. 하지만 어디 출신인가에 상관없이 화자/작가는 홍콩이라는 큰 범주에서 개방적인 태도 내지 공평한 태도로 모두를 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마치 홍콩인이라는 범주는 불확정적이고 유연한 것이어서 홍콩 출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홍콩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교수 羅傑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 羅傑는 이미 한약을 먹는 데 귀신이 될 만큼 홍콩인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고(114쪽), 미국으로 돌아간대도 홍콩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적응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38쪽).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자라서 여전히 외국인으로만 취급되어 늘 허허롭고 공허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3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은 최소한 온갖 부류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116-117쪽). 그는 종족 이데올로기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빅토리아 공원에서 있을 민주화 시위에 나갈 작정을 하기도 한다(118쪽). 바로 이처럼 비록 그의 외모와 출신 때문에 羅傑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홍콩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홍콩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홍콩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음식과 등장인물을 통한 예쓰의 혼종성에 대한 이런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이 작품집의 표제작인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의 결미에 나오는 다음 인용문 부분일 것이다.

배경이 서로 다른 좌중의 친구들을 보면서 음식 문제에서도 공감을 이루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 이렇게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음식과 음식점이 진짜 있거나 할까? …… 둘러보니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한 탁자에 둘러앉아 한창 신이 나서 이야기하면서, 술이 거의 바닥날 정도까지 즐겁게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새로 들어왔다. …… 세상일에 대해 우린 늘 각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언쟁이 그치지 않으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18-22쪽)

한 마디로 말하자면, 예쓰는 홍콩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상의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일종의 공존 화합적인 혼종적 정체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²¹⁾ 그렇다면 이는 劉以鬯이 《對倒》(1972)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혼재하는 일종의 이중 혼형적 정체성을 암시한 것이라든가 西西가 《我城》(1975)에서 일종의 통일된 통문화적 정체성을 내보인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²²⁾

5. 총합적인 홍콩, 총합적인 홍콩인

이 작품집에는 무소부재하는 작가 내지 화자에 의해 무소부재하는 홍콩이 표현되고 있다. 각 작품은 독자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중첩적인 인물과 연관성

21) 라틴아메리카에서 앙헬 라마는 통문화론을, 가르시아 캉글리니는 다시대적 이중혼형성이라는 혼종문화론을, 포르네호 뿔라르는 여러 사회문화적 규범이 융화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혼재하는 상태인 이중혼형성을 각기 주장했다. 이에 관해서는 우석균,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이론들: 통문화, 혼종문화, 이중혼형성>,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5 No.2(서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2.12), 283-294쪽; 네스트로 가르시아 칸글리니, 이성훈 옮김, 《혼종문화》(서울: 그린비, 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22) 이에 관해서는 각각 줄고, <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 《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 — 혼종문화로서의 의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72집(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5.12), 297-320쪽; 줄고, <《我城》(西西)의 긍정적 홍콩 상상과 방식>, 《중국어문논총》 제56집(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3.3), 251-27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있는 사건 및 그것들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풍부한 지시성과 커다란 여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작품은 더욱 중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외에도 아직 말해지지 않은 더 많은 인물과 사건이 있을 것 같다. 인물들은 유동적, 가변적이면서 불안정하고 평범한 소시민이고, 그들이 떠들고 생각하는 것은 소소한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로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화자는 이런 인물들의 언행과 일화를 서술하면서 끊임없이 자질구레한 사설과 논평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며, 홍콩의 도시 풍경과 사회 사안들 또한 장소화하고 역사화한다.

예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특정한 이론이나 외부적 시각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단순화할 수 없는 홍콩의 모습을 구현해내고자 한다. 제목부터 서방의 이론과 관점을 비꼬는 듯한 <서편 건물의 유령(西廂魅影)>에서 홍콩 학생이 유럽인 교수에게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홍콩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홍콩인 교수 何方은 “만일 영문으로 쓴 텍스트만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홍콩의 중문으로 된 작품이라고 영문으로 번역된 중문 작품을 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상의 공동체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도리가 없을 것”(77쪽)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상 예쓰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다. <후기>에서 예쓰는 더욱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론상으로 홍콩을 논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으로도 말할 수 있고 포스트식민주의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 각양각색의 역사와 문화는 책으로부터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부터 체험해 내는 것이다. 갖가지 오만과 편견, 정책상의 소홀, 각종 진전과 후퇴, 빈곤 속의 풍요, 정의 속의 편협, 이런 것들은 식민지를 논한 기존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포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256쪽)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이 작품집에는 각양각색의 인물 및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그들이 접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이 뒤섞여서 혼재한다. 더구나 화자의 표현법은 때로는 몇 가지 관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콜라주나 몽타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때로는 한 공

간 안에 모여 있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과 행동을 돌아가면서 묘사함으로써 영화의 롱테이크 기법처럼 동일 시공간 내 사람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도 하고, 때로는 내적독백·자유연상 등의 수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화자 또는 인물의 심리활동을 통해 한 작품 내에서 다수의 이야기가 자유자재로 교차하기도 한다.²³⁾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수법들이 혼용되는 가운데 인물과 사건 역시 각 작품들끼리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혼잡스럽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실은 바로 이것이 예쓰가 상상하는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홍콩과 홍콩인의 모습이다.

예쓰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외부적인 시각에서 간단히 설명되는 하나의 총체적인 세상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인물,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기억, 수많은 관계들이 서로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진 어떤 총합적인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가 상상하는 세상은 지도나 퍼즐 처럼 다 맞추어놓으면 하나의 완결된 그림이 되는 그런 평면적인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각기 독자적인 작은 요소들이 서로 차원을 달리 하며 각각의 차원에서 그물처럼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세상이다. 이는 마치 모양과 재질 그리고 길이와 굵기가 다른 수많은 섬유와 가닥들이 서로 불규칙하게 얽히고설켜서 만들어진 어떤 물체,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 전체 형태만 보고 간단히 공 모양(구형)이라고 말해버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것처럼 완벽한 원형도 아닐 뿐더러 그 표면 역시 그렇게 매끈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그 복잡한 내부를 떠올려보라. 결국 예쓰가 상상하는 홍콩 또는 홍콩인은 그 표면과 이면에 수많은 구성 요소들 — 각 개인, 일상생활, 인적 관계, 도시 풍경, 사회 사안 등 — 이 명백하게 또는 암암리에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서로 이리저리 얽히고설켜서 이루어진 세상 또는 집단인 것이다.

23) <딤섬 일주>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여러 이야기를 병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심리활동을 통해 더 작은 이야기들을 교차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쓰로서는 홍콩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면서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로부터 과거의 홍콩과 미래의 홍콩을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곳 홍콩에는 없는 게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혼재하며, 이 때문에 일견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명백하게 또는 암암리에 서로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혼합되거나 혼종되기도 하면서 공존 화합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외부의 그 모든 이야기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일 뿐이다. 홍콩은 홍콩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그가 상상하는 총합적인 홍콩, 총합적인 홍콩인은 어떤 외부적인 시각 또는 어떤 특정 이론에 의해 간단히 정의될 수 없으며, 그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자 끝없이 말해나가고 있고 영원히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의 많은 작품 제목이 <메콩강 따라 뒤라스를 찾아서>처럼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그의 많은 작품 내용이 <고도에서 길 찾기>처럼 계속해서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는 길 찾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의 모든 창작은 홍콩에 대한 상상인 셈이고, 그의 모든 삶은 '홍콩을 찾아서(尋找香港)'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쓰의 치열한 의식과 끈질긴 노력이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과 사망으로 인해 돌연 중단되어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 參考文獻 >

-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 네스트로 가르시아 칸클리니, 이성훈 옮김, 《혼종문화》, 서울: 그린비, 2011.
- 예 쓰 지음, 김혜준·송주란 옮김,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왕더웨이 지음, 김혜준 옮김, 《현대 중문소설 작가 22인》, 서울: 학교방, 2014.
- 주텐신 지음, 전남윤 옮김, 《고도》,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也 斯, 《後殖民食物與愛情》,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2009 初版.

- _____, 《後殖民食物與愛情》,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2012 修訂版.
- _____, 《記憶的城市·虛構的城市》, 香港: 牛津出版社, 1993.
- 송주란, 《也斯 산문의 홍콩성 연구: 1970,80년대를 중심으로》, 부산대석사논문, 2010.2.
- 졸 고, <'나의 도시'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 홍콩문학 속의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 '페이용'(菲傭)>, 《코기토》 제69호, 부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2.
- _____, <《我城》(西西)의 공간 중심적 홍콩 상상과 방식>, 《중국현대문학》 제65집,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3.6.
- _____, <《我城》(西西)의 긍정적 홍콩 상상과 방식>, 《중국어문논총》 제56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3.3.
- _____, <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 《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 — 홍콩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72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5.12.
- _____, <홍콩 칼럼산문의 현황과 미래>, 《중국어문논총》 제33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07.6.
- 박남용, <홍콩의 梁秉鈞 시에 나타난 도시문화와 홍콩의식>, 《외국문학연구》 제34집,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5.
- 송주란, <예쓰(也斯) 작품에 나타난 홍콩 도시화에 대한 기억과 흔적 — 소설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54집, 부산: 대한중국학회, 2016.3.
- 우석균,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이론들: 통문화, 혼종문화, 이중혼형성>,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5 No.2, 서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2.12.
- 梁秉鈞, <嗜同嗜異 — 從食物看香港文化>, 《香港文學》總第231期, 2004年3月1日.

< Abstract >

The Imagination of Hong Kong
in Ye Si's *Postcolonial Affairs of Food and the Heart*

Kim, Hye-joon

In Ye Si(也斯)'s collection of short stories — *Postcolonial Affairs of Food and the Heart*(《後殖民食物與愛情》), the omnipresent narrators/author suggest the omnipresence of Hong Kong. Characters and events are imbricated across independent stories, producing rich referentiality and imaginary margins.

The characters are the capricious and unstable ordinary commoners with their own concerns, and they speak and think of petty details of everyday lives and social relationships throughout the book. The narrators not only describe but also constantly comment and annotate on the characters' accounts, words and behaviors in a trifling way. By doing so, the author transpose individual memories into a collective history, and also historicize and spatialize Hong Kong's urban scape and social concerns.

Through this writing strategy, Ye Si does not intend to present a coherent unity that could be seamlessly explained by particular theories or extrinsic standpoints. Instead, he attempts to represent a synthetic world composed by the complex entanglement of numerous individuals, accounts, memories and relationships. Hence, it seems that there is nothing that does not exist(everything exists)in Ye Si's representation of Hong Kong. While everything may appear disorderly and chaotic, they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in obvious or covert ways, and moreover, they mix, hybridize, and coexist with each other.

Key words: Ye Si, Leung Ping-kwan, individual memories, collective history, omnipresent author, hybrid identity, the synthetic imagination of Hong Kong

투 고 일: 2016. 04. 30

심 사 일: 2016. 05. 12-05. 22

게재확정일: 2016. 06. 10